

조선시대 한양에 조성된 官營의 蓮池에 관한 연구

— 東池, 西池, 南池를 중심으로 —

전영옥* · 양병이**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A Study on the Government-controlled Lotus Ponds Constructed in Han-Yang during Chosun-Dynasty

Jeon, Young - Ok · Yang, Byoung - E

*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Maj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onds which were artificially constructed around the castle gate of Han-yang, the capital in Chosun-Dynasty. In order to conduct the research on landscape history, it is necessary to have a field survey and to collect and analyze historic documents. But this study was based on the historic documents published in Chosun-Dynasty because no relics of ponds are found nowadays.

There were Tong-ji(eastern pond) outside of the East Gate, Seo-ji(western pond) outside of the West Gate and Nam-ji(southern pond) outside of the South Gate. They were constructed as lotus ponds and managed by the landscape management office, called Chang-weon-seo in the Ministry of Industry. Tong-ji and Nam-ji were constructed according to geomantic principles. In case of Seo-ji, the situation of construction differed from Tong-ji and Nam-ji in some points. As for the shape of Seo-ji, it was a rectangular pond and had an islet in the middle where flowering plants had been planted.

These ponds were enjoyed by the people lived in Han-yang because they were located near the street. Particularly, people in Han-Yang enjoyed the beautiful scenery of lotus flowers planted in the ponds.

I. 序 論

1. 연구배경 및 목적

조선시대에는 國都였던 한양은 물론 지방의 여러 고을에 나라 또는 官에서 운영·관리하였던 樓亭, 蓮池, 동산, 수림대등이 있었다. 이러한 樓亭, 蓮池, 동산등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적 조경양식의 큰 맥락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양의 경우 나라에서 관리하던 園林 중, 宮苑을 제외한 그 밖의 것들은 다른 고을의 모범이 되어 조선시대 조경문화를 대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침략으로 인한 파괴와 도시화로 그 유적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로 단편적인 기록만이 전해지고 있어 조선시대 조경문화의 한 부분들이 잊혀져 가고 있다.

한양이 조선시대 수도로 결정된 후, 수도로서 면모를 갖추는 과정에서 성문을 중심으로 몇군데 커다란 인공적인 蓮池가 조성되었다. 한양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중의 하나로 이러한 蓮池가 조성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으나, 연못안에 연꽃을 심어 인공적인 경관을 조성하였고 성문 주변이라는 위치가 주는 개방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宮苑외에 나라에서 관리하던 園林으로서 동대문 밖의 東池, 남대문 밖의 南池, 서대문 밖의 西池의 공간적 특성과 이용상황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사

西池나 南池, 東池는 현재 유적이 남아 있지 않은 관계로 거의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고문헌의 기록을 중심으로 윤국병은 『조경사』에서 조선시대 객관이

있던 慕華館과 관련한 西池와 풍수도참설과 관련된 시설로서 東池, 南池, 造山등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¹⁾, 『서울 600년사』에서는 名勝地로서 盤松亭과 西池, 南池, 天然亭에 관해 쓰고 있다.²⁾

3. 연구방법

조경사는 조경학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조경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므로 역사학의 방법론, 그 중에서도 조경작품 - 즉 유적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술작품을 그 대상으로 하는 미술사학의 방법론³⁾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술사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物的 史料로서 찾아낸 미술작품들이 어느시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떤 양식으로 변했으며, 그것은 무슨 이유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했느냐 하는 것을 밝혀 역사적 해석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 연구방법론은 크게 세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한국미술사의 전체적 흐름속에서 정확한 史料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술사학의 史料는 기록된 문헌보다 物的 史料인 미술작품을 주 대상으로 하기에 조경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史料들을 분류하고 계통지어서 樣式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樣式은 역사학에 있어서 제도와 마찬가지로 양식의 실증적 파악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양식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이때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인간전체의 사고방식, 사회환경의 변화까지도 파악해야만 한다.

이러한 세단계의 연구방법은 조경사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기본적인 史料로서 남아있는 유적이 별로 없어 첫번째 단계라 할 수 있는 사료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그래도 남아 있는 것과 발굴을 통해 밝혀지는 유적들을 대상으로 조경사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미술사학과는 달리 주의해

주 1) 윤국병(1989), 『조경사』, 서울: 일조각: 310, 341-342.

주 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977), 『서울 600년사』 권1: 1085-1088. 同 권 2: 974-975. 同 권3: 1264-1265.

주 3) 문명대(1989), 『한국미술사학의 이론과 방법』, 서울: 열화당: 7-17.

야 할 점이 몇가지 있다. 제작된 시대만을 그대로 반영하게되는 미술작품과는 달리 조경작품의 경우는 오랜기간을 거쳐 계속적인 변화가 가해지기 때문에 과연 그 유적들이 어느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가늠해야하며, 원작품과 변화된 부분을 정확히 구별하여 연구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 보충사료의 발굴이 필요한데, 이때 각종 문헌, 회화등이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과 관련하여 볼 때, 이번 연구는 이미 없어져 버린 유적을 연구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정확한 史料를 선택하자면 실제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조경유적에 관한 기록 및 기타 史料들을 찾아내어 1차적인 성격규명을 통하여 다음 단계 연구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번 연구와 같이 연구대상의 유적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朝鮮王朝實錄과 각종 地理志등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해 나가야 한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역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史料로서 각 왕을 중심으로 日字순으로 기록하는 編年體형식을 취하고 있어 조경과 관련된 사건의 정확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地理志는 일정한 지역내에 분포하는 시간적, 공간적, 자연적, 인문적인 제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록⁴⁾이므로 지역별로 조성되었던 조경문화의 고찰에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地理志에 일반적으로 수록되는 항목에 山川, 形勝(뛰어난 地勢에 대한 설명), 樓亭, 古蹟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항목에서는 직접적인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비록 유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한양의 성문 주변에 조성되었던 연못들(東池, 西池, 南池)을 朝鮮王朝實錄과 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1454년), 『新增東國輿地勝覽』(1531년), 『漢京識略』(1830년), 『東國輿地備攷』(고종년간 1863-1907년, 서울대소장본)등 -의 기록과 기타 史料- 「南池耆老會圖」(1629년), 『京都雜志』(정조년간 1776-1800년), 「京畿監營圖」(19세기), 「首善全

圖」(1825년경), 『東國歲時記』(1849년경) -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특히 「京畿監營圖」는 西池의 공간구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史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난 조성경위, 공간구성, 이용상황등을 살펴봄으로써 한양의 주요한 조경시설의 일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한양 성문 주위에 조성된 官營 蓮池

1. 東池, 西池, 南池의 조성

여러가지 기록을 참고해 볼 때, 한양 성문 주위에 인공적으로 조성하여 나라에서 관리하던 池로는 東池, 西池, 南池를 들 수 있다(그림 1).

圖全善首



(그림 1) 한양에 조성된 東池, 西池, 南池

주 4) 양보경(1987)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지리학 논총』, 별호 3:13.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官撰地理志인 『新增 東國輿地勝覽』(1481) 山川조에 西池와 南池가 기록되어 있으며, 柳本藝가 쓴 『漢京識略』(1830년경)의 山川조와 저자 미상의 『東國輿地備攷』(고종년간 - 서울대소장본) 山川조에도 각각 東池, 西池, 南池가 기록되어 있다. 이 지리지들을 통해 볼때, 조선시대 한양에는 각기 東池, 南池, 西池가 있었으며 이들 모두 연못을 심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못들이 도성의 건설이나 성곽의 개축과 함께 만들어졌을 것이나 정확한 연대에 관한 기록은 아직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만 세종 15년 7월의 기록에 남대문 밖의 池에 석축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는 내용의 기록으로 미루어 南池의 경우는 그 이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⁵⁾

그러면 이러한 연못들이 조성된 배경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 15년에 경복궁의 오른팔인 산들이 모두 낮고 미약하며 넓게 트여 품에 안는 판국이 없으므로 남대문 밖에다 못을 파고 문안에다 支天寺를 두었는데, 그래도 남대문의 지대가 낮으므로 이를 높여 남산과 인왕산의 산맥을 연결시키기위해 남대문을 개축하고자 하였다.⁶⁾ 세조 13년의 기록에는 京都의 坤方(서남방)이 낮고 卑하며 水口(東方)가 寬闊하여 漕漕, 홍인문 바깥에 연못을 파 물을 저장하였는데, 근래에 많이 훼손되어 연못을 더 깊게 파고 나무를 심어 氣脈을 모으도록 청하고 있다.⁷⁾ 성종 16년에는 한양에 도읍을 정할 때 漕漕문 바깥에 池를 판 것과 崇仁門 안쪽에 造山한 것은 道說의 裨補之術을 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⁸⁾

풍수지리설에서는 裨補風水라 하여 허한 장소나 방위에 사탑을 창건한다거나, 큰 돌을 놓거나, 물을 저장하여 地氣의 흠어짐을 막는다. 한양의 경우 水口門과 坤方이 허한 것이 결점으로 지적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裨補風水의 하나로서 東池와 南池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西池의 경우는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조성경위에 관한 자세한 것은 다음장에서 논하기로 하겠다.

한양에 조성되었던 이러한 연못들은 그 관리를 掌苑署에서 맡아 하였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연밭을 수확해서 御供으로 썼다.⁹⁾ 掌苑署는 원유의 꽃과 과실의 관리를 맡았던 工曹 소속의 기관¹⁰⁾으로 東池, 西池, 南池는 用水나 防火와 같은 목적보다 그 곳에서 나는 연밭을 수확하고 또한 휴식, 풍류를 즐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東池와 南池의 공간구성과 이용상황

東池에 관해서는 『新增 東國輿地勝覽』에는 나타나지 않고 『漢京識略』과 『東國輿地備攷』에만 쓰여있다. 『漢京識略』에 따르면 東池가 창경궁 동편 蓮洞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¹¹⁾ 『東國輿地備攷』에는 東池는 홍인문 밖과 景慕宮 앞에 있는데 둘다 연꽃을 심었다 한다.¹²⁾ 景慕宮은 思悼世子와 그의 비 獻敬王后의 사당으로 영조 40년(1764)에 처음 지어 1776년 정조가 즉위하면서 사당을 다시 지어 景慕宮이라 칭한 것이므로, 19세기 말에 쓰여진 『東國輿地備攷』의 기록에 나온 景慕宮 앞에 있었다는 蓮池는 일단 한양이 건설

주 5) 『世宗實錄』 卷61 15年 7月 丁丑條 “康寧殿慶會樓補簷改 宮城造築 南大門改築十... (中略) - 南大門外池築石等項 役人令調發”.

주 6) 『世宗實錄』 卷61 15年 7月 壬申條.

주 7) 『世宗實錄』 卷42 13年 6月 癸丑條 “觀象監啓 京都坤方低卑 又水口寬闊 故於崇仁與禮二門之外 皆鑿池貯水 近者不曾修築 或填塞水淺 或堙沒無址 願深鑿貯水 植木堤岸 以畜氣脈”.

주 8) 『成宗實錄』 卷174 16年 正月 辛卯條 “定都漢陽 鑿池於崇禮門外 造山於崇仁門內 皆用道說裨補之術”.

주 9) 『漢京識略』 山川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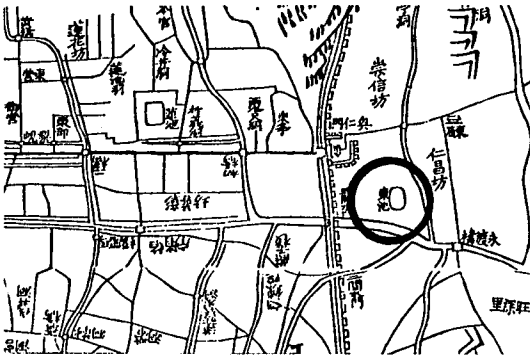
주 10) 『漢京識略』 闕外各司條.

주 11) 『漢京識略』 山川條 東池.

주 12) 『東國輿地備攷』 卷2 山川條 東池.

될 때 만들어졌다기 보다 경모궁을 지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東池의 위치에 관해 두 문헌의 기록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한양의 동편에는 세곳에 蓮池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首善全圖」(1825년 경)¹³⁾에 잘 나타나 있다. 「首善全圖」에 따르면 경모궁 앞에 蓮池 1개소, 蓮池洞에 蓮池 1개소가 그려져 있으며, 흥인문 밖에 있는 연못은 특별히 東池라 기록하고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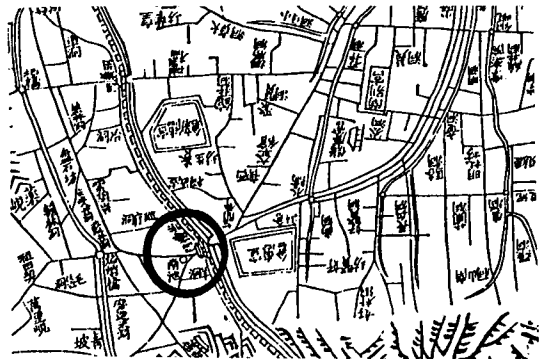
(그림 2) 「首善全圖」에 그려진 東池

이로 볼때 한양 동편에 있던 3곳의 蓮池중 흥인문 밖의 蓮池를 西池, 南池와 견주어 東池라고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東池의 공간구성에 관한 史料는 찾아내지 못하였으나, 그 이용상황에 관해서는 植木所에 관한 기록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植木所는 東大門 쪽에 동쪽의 허함을 막기 위하여 造山을 만들고 그와 함께 버들을 많이 심은 장소로, 봄철에 그 풍치가 불만하여 성안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었다.¹⁴⁾ 동대문 밖에 위치하였던 植木所의 이용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東池의 경관도 이용자들의 감상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南池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新增 東國輿地

勝覽』에는 승례문 바깥에 있고 蓮池라 불렀다 하며, 『東國輿地備攷』에서도 그 위치나 蓮池였던 것에 관해 『新增 東國輿地勝覽』과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 『漢京識略』에서도 마찬가지로 南池의 위치를 승례문 밖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¹⁵⁾ 「首善全圖」에도 남대문을 통하는 두개의 갈림길 사이에 조성되었던 것이 잘 그려져 있어(그림 3), 南池의 경우는 승례문 밖 한곳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首善全圖」에 그려진 南池

南池의 공간구성에 관해서 살펴보면, 『世宗實錄』에 남대문 밖의 못에 석축을 하였다는 기록¹⁶⁾과, 「南池耆老會圖」(1629)라는 契會圖가 남아 있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그림 4). 그림에 따르면 南池는 승례문이 보이는 위치에 있었으며, 그 대략적 형태를 살펴보면 方池에 四岸을 돌로 쌓았으며, 그 주위에 버드나무가 있고 池內에는 연꽃이 무성하게 피어 있다.

南池의 이용상황에 관해서는 「南池耆老會圖」가 그려진 것으로 알 수 있다. 耆老會란 70세 이상의 덕망이 높고 2품이상의 관직을 지냈던 원로 문인들로 구성된 계획로서 풍류를 즐기고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耆老會가 南池가에서 열렸던 것으로 보아 南池는 휴식과 풍

주 13) 金正浩 作. 순조 25년(1825)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근대지도에 가까운 실측세밀지도로 볼 수 있다.

주 14) 『漢京識略』城郭條 “城東爲水口稍低 故補築假山 植柳謂之植木所 至春風景可觀爲都人遊賞處”.

주 15) 『新增 東國輿地勝覽』卷3 漢城府 山川條 南池.

『東國輿地備攷』卷2 山川條 南池.

『漢京識略』山川條 南池.

주 16) 『世宗實錄』卷61 15年 7月 丁丑條(주 5 참조).

류를 즐기기 위한 연회장소로 이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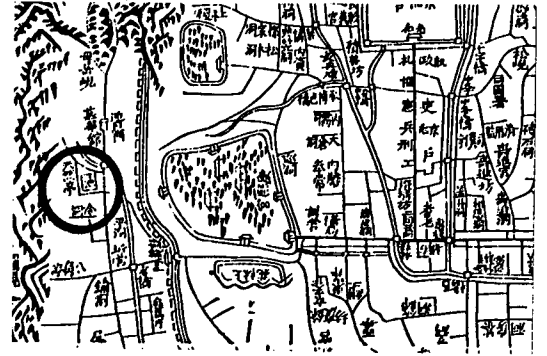
(그림 4) 「南池耆老會圖」, 李起龍작, 1629년, 絹本彩色, 116.4×72.4cm, 서울대박물관소장

III. 西池의 조성

1. 조성경위

西池는 敦義門(서대문) 바깥쪽(현 서대문구 天然洞 일대)에 위치하였으며 동대문과 남대문 바깥의 연못을 각각 東池, 南池로 부르던 것과 같이 그 명칭을 보통 西池라 하였다(그림 5).

西池 주변에는 고려시대의 왕이 南京(한양)에 행차하였다가 비를 피하였다는 반송이 있어 조선



(그림 5) 「首善全圖」에 그려진 西池

시대 초기에는 盤松池라고 불리기도 하였다.¹⁷⁾ 盤松亭은 당시 개성쪽에서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여,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주로 중국 사신을 맞이하고 전송하던 곳으로 이용되었던 것을 『太祖,太宗實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⁸⁾

또한 西池와 관련하여 慕華樓¹⁹⁾가 있다. 慕華樓는 태종 7년(1407)에 왕명에 의해 지어졌²⁰⁾, 盤松亭에서 이루어지던 중국사신의 영송행사가 慕華樓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에도 盤松亭은 없어지지 않고 무술시험장이나 연습장으로 이용되었다.²¹⁾ 慕華樓는 중국사신을 영접하는 곳이었으므로 특별한 경관의 조성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태종이 慕華樓의 南池를 파도록 명하였다.²²⁾ 특히 慕華樓의 南池 조성에 관한 기록은 西池의 조성경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다.

이후 西池주변에는 西池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용하여 정자들이 지어졌다. 英祖朝(1725-1775)에 경기도 中軍營이 설치되면서 바로 옆에

주 17) 『新增 東國輿地勝覽』卷 3 漢城府 樓亭條 盤松亭.
『東國輿地備攷』卷 2 漢城府 樓亭條 盤松亭.

주 18) 『太祖實錄』卷10 5年 7月 甲戌條, 同 卷14 7年 6月 戊辰條.

『太宗實錄』卷11 6年 3月 己酉條, 同 4月 己卯條, 同 5月 丁酉條.

『太宗實錄』卷12 6年 7月 己酉條, 同 10月 己酉條, 同 12月 丁未條.

『太宗實錄』卷13 7年 1月 己未條, 同 5月 甲寅條, 同 6月 戊子條, 同 6月 辛丑條.

『太宗實錄』卷14 7年 7月 壬子條, 同 8月 丁亥條.

주 19) 慕華樓에 관한 명칭은 세종 12년에 館으로 고쳤기 때문에 세종년간이후의 기록을 인용할 때는 慕華館이라 하겠다.

주 20) 『太宗實錄』卷14 7年 8月 癸卯條.

주 21) 『太宗實錄』卷17 9年 4月 乙酉條. 同 卷19 10年 3月 戊寅條.

주 22) 『太宗實錄』卷15 8年 4月 庚子條. 同 5月 乙卯條.

있던 西池가에 天然亭을 지었다. 天然亭은 본래 李海重의 서재였으며 후에 京畿監營이 설치되면서 中營公廳이 되었다. 天然亭은 여름이면 西池의 연꽃이 무성해서 성안사람들이 연꽃구경하기에 좋은 곳이었으며, 이로 인해 西池를 또한 天然池라 부르기도 하였다. 그밖에 西池부근에는 遠觀亭도 있었다.²³⁾

그러면 한양의 명소로서 아름다운 경관을 갖춘 조경시설로 볼 수 있는 西池는 어떤 경위로 조성되었는 지 알아보기로 하자.

東池와 南池의 경우와 달리 西池 조성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은 아직 찾아내지 못하였다. 지금까지는 慕華樓가 돈의문 서북쪽에 있었고 西池는 돈의문 서쪽에 있어서 앞서 이야기된 慕華樓의 南池 조성이 곧 西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西池는 東池와 南池와는 달리 慕華樓라는 객관의 한 부분으로서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慕華樓의 南池가 곧 西池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다른 기록들에 비추어 볼 때 의문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慕華樓의 南池는 태종 8년(1408) 4월에 왕명에 의해 공사가 시작되었다.²⁴⁾ 『太宗實錄』 8년 5월의 기록에 따르면 判恭安府事 朴子靑의 감독하에 만들어지던 연못은 그 수맥을 찾지 못하여 공

사가 지연됨에 따라 사헌부에서 탄핵을 청하고 있다. 이 기사 내용 중 못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못이 모화루까지 150여步, 가로(廣) 300尺, 세로(長) 380尺이라고 한다.²⁵⁾ 세종 12년 도량형개혁이 있기 이전인 조선시대 초기에는 1步가 6尺이고 1尺이 약 32.21 cm이었으므로,²⁶⁾ 지금의 척도로 환산하면 못에서 慕華樓까지의 거리는 약 289.89 m, 가로 약 96.63m, 세로 약 122.49m의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개성에 있는 崇敎寺 연못의 蓮을 배로 실어다 심어 蓮池로 조성하였다.²⁷⁾

이 기록에 따라 慕華樓의 南池의 조성이 곧 돈의문 밖의 西池의 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世宗實錄地理志』에는 慕華樓 남쪽에 내모진 못이 있는데 낮은 담을 쌓고 버들을 심었다고 하였다.²⁸⁾ 이 기록을 참고할 때, 2가지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慕華樓 南池가 곧 西池로서, 조선시대 초기에는 慕華樓의 경내로 넓은 지역을 담으로 둘러싸아 다른 지역과 경계를 분명히 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慕華樓와 西池 사이에 가옥이 밀집되고²⁹⁾ 담이 무너져 내려 慕華樓와 西池가 분리되면서 「경기감영도」에 그려진 것과 같은 상태로 통상 西池라 칭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둘째, 慕華樓의 南池

주 23) 『漢京識略』 卷2 名勝條 “天然亭在敦義門外西池邊 此亭本是李海重之書齋也 今爲京畿道監營之中營公廳 而池荷最盛都人夏月賞蓮處賴有此亭耳”

『東國輿地備攷』 卷2 漢城府 山川條 西池 “在慕華館南 天旱濤雨有應 種蓮 池西岸上有京畿道中軍營 構天然亭又有遠觀亭”

주 24) 『太宗實錄』 卷15 8年 4月 庚子條 “命鑿慕華樓南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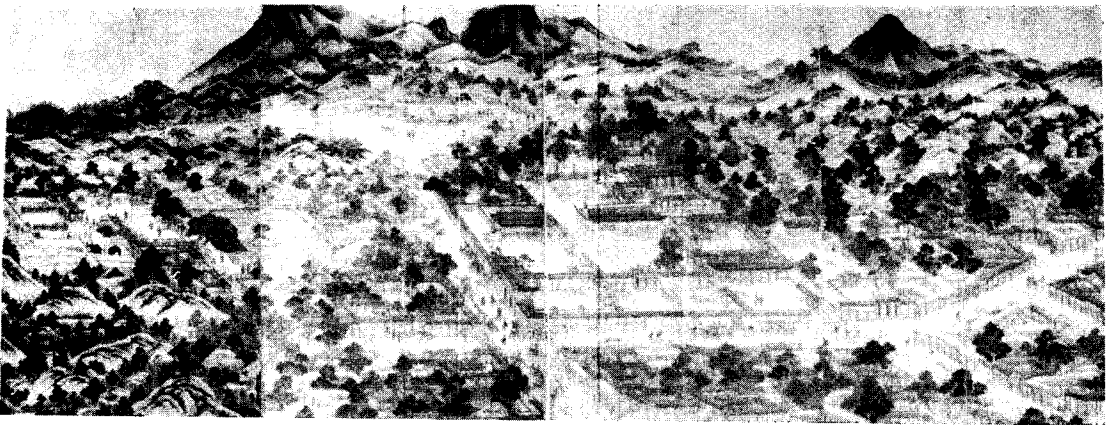
주 25) 『太宗實錄』 卷15 8年 5月 乙卯條 “池距樓一百五十餘步 長三百八十尺 廣三百尺 深二三丈 水之有無則在汝所見”

주 26) 朴興秀(1967), “이조척도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제4집: 199-215. 이 논문에서 태조 5년 도성축조에 사용된 營造尺은 32.21cm, 세종 12년의 營造尺은 31.22cm로 밝혀졌다.

주 27) 『太宗實錄』 卷15 8年 5月 丁卯條.

주 28) 『世宗實錄地理志』 京都 漢城府 慕華館 “在敦義門外西北 本名慕華樓 以爲朝廷使臣迎接之所 今上十二年庚戌改創爲館 南有方池築垣種柳”

주 29) 한양으로의 인구집중에 관해서는, 세종 6년(1424)에 벌써 도성내 사람이 많은데 땅이 협소하여 東大門 水口門 밖의 거주지로서 적합한 땅을 민간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한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京中五部에는 더 정착할 수가 없어 城底各面に 정착하게 하고, 이어서 城底各面을 폐지하고 이를 모두 五部の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기에 이른다. (손정목(1988),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 서울: 일지사: 36-37.)



(그림 6) 「京畿監營圖」, 작자미상, 19세기, 紙本淡彩, 1358×4422cm, 호암미술관

와 돈의문 밖 西池는 별개의 것으로, 『世宗實錄 地理志』의 기록대로 모화루 경내에 속하여 담으로 둘러 쌓을 수 있는 규모의 또 다른 연못이 있었고, 길가에 큰 규모의 西池가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로서 조선시대 초기에는 西池의 명칭이 慕華樓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盤松亭과 관련하여 盤松池로 통하였으며, 후일에는 西池가 天然亭과 함께 경기감영 경내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西池가 조성된 이유에 관해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慕華樓의 南池가 곧 西池라면 객관을 아름답게 하기위해서 만들어진 연못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일 두개의 연못이 별개의 것이라면, 나라의 도읍을 열 때 처음부터 동서남북에 연못을 만들어야 한다는 『明宗實錄』의 기록³⁰⁾처럼 國都를 건설할 때 어떤 필요에 의해 계획되었던 연못이 된다.

2 공간구성과 이용상황

西池의 공간구성과 그 이용상황을 약간의 기록과 「경기감영도」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西池가 서대문과 관련하여 조성되었던 慕華樓의 南池로 조성되었던 간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상 그명칭을 西池라 불렀으며 西池가에 天然亭이 만들어져 都城사람들에게는 경승지로서 유명하였다. 그후 다시 경기감영이 西池가에 설치되었고 天然亭은 경기감영의 中營公廳으로 쓰였으며, 이 그림이 그려졌다. 「경기감영도」에 그려진 西池는 조성당시와 4세기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조경양식의 변천이 매우 느린 것을 감안할 때 「경기감영도」는 西池의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史料이다.

먼저 공간구성에 있어서 문헌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蓮池로 조성하였다는 사실이다.³¹⁾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문헌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후대에 그려진 하였지만 「경기감영도」가 남아 있어 西池가 어떤 형태로 조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그림 6).

작자미상의 「京畿監營圖」³²⁾는 12폭 병풍으로서

주 30) 『明宗實錄』 卷4 元年 8月 丁未條 “大抵國都開設之初 鑿東西南北池 必有意也 今有折受者云無遺堆之依舊爲池”

주 31) 『東國輿地備攷』 卷2 漢城府 山川條 西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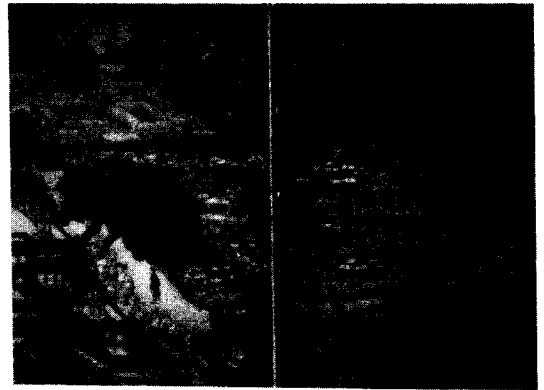
주 32) 『한국의 미 19-풍속화』 도판 60 참조

제작시기는 19세기로 추정되며, 그 작자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능숙한 畫員 몇명이 그렸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그림은 시가지를 보다 간략하게 나타낸 地圖형식으로 많이 그려졌으나, 이 그림은 시가의 인물표현, 건축물들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 西池의 공간구성이나 이용상황에 관해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는 史料가 되고 있다. 병풍 오른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제 1쪽에 敦義門(서대문)이 보이고 제 6쪽의 중앙에 있는 큰 건물이 관찰사가 집무하던 宣化堂이다. 제 8쪽 왼쪽의 一柱門이 迎恩門이고 그 아래에 慕華館이 있으며 다시 그 아래쪽에 西池가 그려져 있다.

그림에 따르면 그 형태에 있어서 西池는 거대한 方池로 池中에 한개의 섬이 조성되었다. 池中의 섬은 자연스러운 암석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그 섬에 2종류의 나무가 심겨져 있다. 西池의 식생을 살펴보면 있는데, 그림을 통하여 나무의 수종을 정확히 판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그림으로도 수종을 알 수 있는 蓮, 소나무, 활엽수 등은 구분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문헌의 기록과 일치하게 연못 전체에 많은 연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고, 池中島에는 花木과 활엽관목이 심겨져 있다. 方池 주변에는 槐木인듯한 나무 2그루가 있고 집들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인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方池의 축조방식은 사방 가장자리를 흙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못을 중심으로 그 바깥에는 바로 길이 있다. 그 밖에 方池 서편의 槐木 아래에 작은 우물이 설치되어 있다. 인가가 조밀한 지역의 길가에 조성되어서 그런지 큰 규모와 연꽃, 池中島만으로 경관을 조성하고 있고 다른 조경시설은 보이지 않는다(그림 7).

그러면 西池의 이용상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한양은 관할구역을 都城內와 都城 주변 약 10리 구역으로 나누었다. 또한 太祖년간에는 城

內를 中部 8坊, 東部 12坊, 南部 11坊, 北部 10坊, 즉 5部 52坊으로 구분하였다. 西池가 위치한 지



(그림 7) 「京畿監營圖」 西池 부분

역은 西部 盤松坊으로서 敦義門 밖으로 城外이긴 하지만 京中五部 또는 城中五部라 하여 성내외의 구별없이 다루던 곳으로, 개성에서 한양간의 통로에 연하여 일찍 부터 인가가 조밀한 지역이었다.³³⁾ 「경기감영도」에도 인가가 조밀하게 붙어 있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게다가 西池는 바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인가가 조밀한 지역 도로변에 西池가 위치하였다는 것은 西池가 성의 가까운 곳에 설치된 조경시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漢京識略』에는 성안사람들이 여름에 연꽃구경하기에 天然亭이 가장 좋은 곳이라 기록하고 있으며,³⁴⁾ 「경기감영도」에서도 西池가로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그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 주로 蓮池의 경관에 대한 정적 감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름철 한양 성곽주위를 돌며 더위를 피하던 풍습이 있었는데, 西池의 뛰어난 경치는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京都雜志』(정조년간 1776-1800)에 따르면 彌雲臺의 살구꽃, 北屯의 복사꽃, 동대문 밖의 버들, 天然亭(西池)의

주 33) 孫禎睦(1988),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 33-39.

주 34) 주 23 참조.

주 35) 『京都雜志』 卷 1 遊賞條 “彌雲臺杏花 北屯桃花 興仁門外楊柳 天然亭荷花 三清洞蕩春臺水石 觴詠者多集于此 都城周四十里 一日遍巡周覽城內外花柳者爲勝”

『東國歲時記』 6월 月內條.

연꽃, 三清洞, 蕩春臺의 水石을 구경하기위해 많은 사람이 몰렸으며, 도성주위 40리를 하루 동안에 두루 돌아다니고 성내의 꽃과 버들을 다 본 사람을 제일로 쳤다. 『東國歲時記』(1849년경)에는 이러한 풍습이 후한말 劉松이 袁紹의 자제들과 하삭(황하의 북쪽)에서 삼복날 통쾌하게 술을 마시면서 더위를 피했던 고사(河朔의 會飲)를 모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⁶⁾

IV. 결 론

조선시대 國都인 한양에는 東池, 西池, 南池가 각각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밖에 조성되었다. 이들 연못들은 모두 掌苑署에서 관리하는 나라 소유의 시설이었다.

이 세 연못의 조성배경에 관하여 살펴보면, 東池와 南池의 경우는 도성건설당시 서남방과 동방의 지세가 낮아 裨補風水의 예로 만들어졌다. 西池의 조성경위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여러가지 기록들을 종합하여 볼 때 慕華樓라는 객관의 南池로서 조성되었을 경우와 慕華樓와는 관련없이 東池, 南池와 같은 맥락에서 서대문이라는 통로밖에 조성되었을 2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東池, 西池, 南池의 형태는 方池로 池內에 많은 연꽃을 심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西池의 경우는 「경기감영도」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거대한 方池와 한개의 섬을 중심으로 인가가 조밀한 지역의 길가에 조성되어 있다. 식생은 池中에는 연꽃이, 池中島에는 花木과 활엽관목이 각각 1그루씩, 그리고 方池 서편으로 槐木 2그루가 심겨져 있다. 특히 方池 서편 槐木 밑에는 우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方池의 四岸은 흙으로 처리하고 있다.

세 연못이 모두 도로변에 조성되어 이용자들의 연못경관에 대한 정적감상이 이루어졌다. 東池 근처에는 동쪽의 허함을 막기 위하여 버드나무를 심은 植木所가 있었는데 그 풍치가 아름다워 성내의 많은 사람들의 유람처가 되었다. 西池의 경우, 연꽃 구경이 유명하여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南池는 契會가 열리는 연회장소

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한양에서는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위해 한양 성곽 주위를 돌며 유람하던 풍습이 있었는데 이 때에도 東池, 西池, 南池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西池를 비롯하여 東池, 南池는 조성배경과 이용면에서 궁원이나 개인 정원과는 다른 성격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용면에서 볼 때, 세 연못은 성내의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였으므로 특별히 자기 소유의 정원이 없는 사람들도 한양이라는 도시속에서 누릴 수 있는 조경문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연구는 西池의 조성배경에 관한 정확한 논증을 통하여 각각의 연못이 도성건설과 관련된 裨補風水의 예로 성문밖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다른 큰 고을에도 이러한 종류의 조경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공통된 특징들을 추출하기위하여 다른 고을들에 관한 조사연구도 필요하다.

引用 文 獻

1. 국사편찬위원회(1970)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2. 文明大(1989) 「한국미술사학의 이론과 방법」, 서울: 열화당.
3. 민족문화추진회 譯(1987) 「明宗實錄」.
4. 朴興秀(1967) “이조척도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제 4집.
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977) 「서울 600년사」, 권1 - 4.
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譯(1972) 「太祖實錄」.
7. _____(1974) 「太祖實錄」.
8. _____(1968) 「太宗實錄」.
9. _____(1973) 「世宗實錄地理志」, 세종실록 권 25.
10. _____(1977) 「世祖實錄」.
11. _____(1980) 「成宗實錄」.
12. 孫禎睦(1988)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 서울: 일지사.
13. _____(1973. 11) “풍수지리설이 우리나라 도읍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도시문제」.
14. 양보경(1987)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지리학 논총」, 별호 3.

15. 柳得恭(正祖代 1776-1800) 『京都雜志』, 李錫浩 譯 (1991) 『조선세시기』, 서울: 동문선: 179-232.
16. 柳本藝(1830) 『漢京識略』, 서울대소장 필사본, 權泰益 譯(1981) 『漢京識略』, 서울: 탐구당.
17. 尹國炳(1989) 『조경사』, 서울: 일조각.
18. 李炳善(純宗代1907-1910) 『全鮮誌』.
19. 李荇登(1531) 『新增 東國輿地勝覽』, 동국문화사 고전간행회 影印 서울대소장본, 민족문화추진회 譯 (1971) 『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
20. 저자미상(高宗代 1863-1907) 『東國輿地備攷』, 서울대소장본.
21. 정동오(1992) 『東洋造景文化史』,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2. 중앙일보사(1985) 『한국의 미 19-풍속화』.
23. 崔昌祚(1989) 『한국의 풍수사상』, 서울: 민음사.
24. 한국인문과학원(1989) 『조선시대 私撰邑誌』, 권 1 影印本.
25. 한글학회(1966) 『한국지명총람 1-서울편』.
26. 洪錫謨(1849) 『東國歲時記』, 李錫浩譯(1991) 『조선세시기』, 서울: 동문선: 11-136.